



진화하는 디자인
**Milano
Design
Week
2024**

유니크한 큐레이션이 돋보이는
북 라운지 8곳
아이레니 코시가 채운 아카이브
이야기를 수집하는 집
여름 경주에서 즐기는 휴식



하이브리드 키친

주방 디자인은 웰빙, 편리함,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성 등 복잡한 시대의 내레이션과 가치를 반영하며 나날이 진화 중이다. 개인화를 목표로 스마트 빌

트인 가전, 첨단 쿠키 후드, 미래지향적인 요리와 보존에 대한 빅 브랜드들의 고찰을 엿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가전과 빌트인 패키지를, LG전자는 AI 오븐, 홈 시스템에 연결된 가전으로 편의성을 높인 통합 키친 솔루션을 제시했으며, 밀레는 앱을 활용해 편리한 제어가 가능하며 간접 조명 역할을 하는 후드 시스템을 소개했다. 무엇보다도 극도로 발전된 기술 덕분에 현대적인 미학을 구현하기가 수월해졌는데, 다채로운 미적 표현의 실현 중에서도 천연 소재의 촉각성에 집중한다. 목재 마감재 브랜드 쇼텐&한젠(Schotten&Hansen)은 프리미엄 주방 가전 브랜드 가게나우의 제품에 알프스산맥의 능선에서 영감을 받은 입체적인 목재 패널 리지라인(Ridgeline)을 적용했다. 헨지(Henge)의 오페라 컬렉션은 볼륨감 넘치는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적인 주방 가구로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잘 보여준다. LG전자 그룹의 최고급 빌트인 가전제품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는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가 디자인한 모듈식 프리스탠딩 캐비닛인 맨틀(Mantle)을 론칭했다. 5가지 컬러의 시멘토(Cimento) 타일 표면 마감은 입체적인 질감과 형태미를 강조하며 하나의 조각적 오브제로서 거실과 주방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유동적인 공간 속 가전에서 가구로 확장된 개념을 보여주었다.



©Christoph Philadelphia & Wearonald



©Matteo Imbriani



©Henge



- 1 가게나우×쇼텐&한젠의 목재 패널로 마감한 감각적인 주방 디자인.
- 2 모듈식 프리스탠딩 캐비닛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맨틀은 조각적 오브제로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 3 대리석의 고급스러운 자연미를 극대화한 헨지의 오페라 주방 가구.
- 4 팔맥의 아일랜드형 주방인 브루클린은 블랙